

4. 반란치하의 여순지역

반란지역인 여수·순천지역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폭동군이 경찰서를 공격하여 한 지역을 점령한 뒤 토착공산주의 세력과 합세해 경찰, 우익요인, 우익청년학생 등을 색출하여 즉결처분하거나 주요 경찰간부, 우익요인 등은 구금해 며칠 후 인민재판을 통해 처분하는 양상을 띠었다.

둘째, 그 직후 폭동군은 남로당 및 지방좌익과 합세하여 인민위원회·보안서·의용군 등을 구성하였으며, 폭동군과 의용군은 전투를 담당하고 인민위원회는 인민행정과 인민재판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란군과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행위들, 특히 가장 조직적으로 보였던 인민행정조차도 사전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38선이 터져서 남조선 해방은 눈앞에 다가왔다’ 등과 같은 허위선전을 은폐·합리화할 필요성에서, 그리고 진압군의 진압진척상황에 대응해서 나타난 즉흥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셋째, 위의 두 과정에서 강압이었던 자발적이었던 간에 군중이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반란치하의 여순지역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1) 반란군의 초기 활동

여수의 경우 반란군이 좌익청년학생들을 앞세우고 본격적으로 경찰·우익요인·청년 등을 색출하기 시작한 것은 여수경찰서를 점령한 20일 새벽 3시에서 7시간 가량 지난 오전 10시부터였다. 경찰은 군중들에게 잡히면 마구 밟히거나 구타당하여 살해되었고, 반란병사에게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되기 일쑤였다. 체포된 사람 중 극우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나머지는 읍사무소 2층에 가두었다. 그러나 체포된 경찰이나 우익인사들이 모두 처형된 것은 아니었다. 즉결처분이나 인민재판으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이른바 악질반동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로서 평소에 충돌이 잦았던 자이거나 경찰간부였다. 23일 밤에는 즉결처분 혹은 인민재판에서 처형을 면한 경찰과 우익요인 등 약 200여 명이 석방되기도 하였다. 반란군의 여수점령 기간 중 즉결처분 및 인민재판으로 피살된 인원수는 200여 명이었으며, 그 중에는 경찰 74명이 포함되어 있다.

순천의 경우는 여수보다 점령기간이 짧았는데도 900여 명의 관민이 사망했으며, 그 중 경찰은 전사자를 포함하여 400여 명이 살해되었다. 반란군은 시내에 숨어 있던 경찰관들과 우익인사들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좌익계 학생들과 교사들을 일본계 소총으로 무장시켰다. 반란군에게 살해된 대부분의 경찰은 주로 신참이거나 인접군의 응원 경찰들로서 순천지역의 지리와 상황을 잘 몰라서 체포된 경우가 많았고, 고참경관이나 간부는 대부분 피신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즉석에서 사살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인민재판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처형됐다. 죄가 있다고 판명되거나 단지 경계대상이라고만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처형됐다. 일단 반동분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점령 첫날 은행 앞 광장에서 처형되었다. 순천경찰서장도 두 눈이 뺨히고 온몸이 땀땀 묶인 채 차땀땀에 묶여 끌려다니다가 화형당했다.

제일 먼저 반란군에게 체포됐던 경찰관들은 무조건 총살되었으며, 나중에 체포된 70여 명의 경찰관은 순천경찰서 앞마당에서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집단학살을 당하였다. 또 반도들은 체포된 경찰관을 산 채로 모래구덩이에 파묻어 죽이기도 했다. 모래구덩이에 묻힌 뒤 미처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경찰관을 위에서 죽창으로 푹푹 찢어 죽였다.¹⁾

1) 순천문화원, 『순천순주항토지』, 108쪽.

여수보다 순천에서 경찰 혹은 우익요인이 더욱 무참하게 살상되었다. 여수보다 순천에서 피살된 경찰의 수가 더 많고 더욱 비참하게 살해된 이유는 순천의 반란군들이 이미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방 이후 여순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수보다 순천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수와 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군들에서 경찰, 우익요인, 청년단원들은 반란군의 처형소식을 듣고 대부분 도주하였다. 따라서 별교·고흥·보성·광양 등지의 경찰서는 반란군 혹은 지방 토착좌익에게 무혈점령되었으며, 그만큼 여수와 순천보다 피해가 적었다. 이 중에서 보성방면의 피해자수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경찰은 전사 5명, 피살 39명(이 중 별교서 관내 조성지서에서 나체로 총살된 30명 포함) 총 44명이, 민간인은 15명이 피살되었다.

2) 반란군의 인민행정 실시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제14연대 병력은 그 지역의 좌익인사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인민위원회와 인민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행정조직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20일 아침부터 여수의 중앙동에는 벽보판마다 미군철수, 제주도출동거부 병사위원회 성명서, 인민해방군만세, 여수인민에게 고함, 인민군 38선 돌파, 이승만 일본도망, 여수인민위원회 성명서, 토지는 농민에게 등의 벽보들이 붙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앙동 광장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군중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여수의 좌익인사들이었던 이용기·이창수·박창래·주원석·유목윤·김상렬·김현수·강대훈·박채영·문성휘·김귀영 등이 참여하였다. 남로당 여수군당위원장은 이용기였으며 군중대회에서 지창수가 인사말을 했다. 14연대의 일부병력은 순천으로 떠났으나 지창수는 여수에 남아 여수를 총괄하고 있었다. 중앙동의 여수시민 군중대회에서 여수의 인민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으로 이용기·유목윤·박채영·문성휘·김귀영·송옥 6명이 뽑혔다. 이 자리에서 구성된 인민위원회에서는 6가지의 혁명과업을 채택하여 시민들의 승인을 얻었다.

인민위원회의 혁명과업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위원회가 여수지구 행정기관을 접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무효로 한다. 다섯째, 경찰관, 친일파, 모리간상배,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등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처단한다. 여섯째,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한다²⁾.

여수인민위원장 이용기는 취임사에서 인민위원회가 실행해나갈 사항들을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친일파, 모리간상배를 비롯하여 이승만도당들이 단선단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던 경찰·서북청년단·한민당·독립촉성국민회·대동청년단·민족청년단 등을 반동단체로 규정하고, 그들 중 악질적인 간부들은 징치(懲治)하되 반드시 보안서의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형·징역·취체(取締)·석방 등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악질경찰을 제외하고는 사형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부득이하게 될 경우에도 최소화할 것이다.

둘째, 친일파·모리간상배들이 인민의 고혈을 빨아 모은 은행예금을 동결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셋째, 적산가옥과 아무 연고도 없는 자가 관권을 이용하여 억지로 빼앗은 집들을 재조사해서 정당한 연고권자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넷째, 매판자본가들이 세운 사업장의 운영권을 종업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섯째, 식량영단의 문을 열어 굶주리는 우리 인민대중에게 쌀을 배급해줄 것이다.

2)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15, 1991, 261쪽.

여섯째, 금융기관의 문을 열어 무산대중에게도 은행돈을 빌려줄 것이다.³⁾

인민위원장의 취임사가 있는 후 박채영의 선창으로 인민공화국 만세삼창이 있는 뒤에 시가행진에 들어갔는데 도중에 많은 사람이 끼어들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지하에서 활동 중이던 민애청·민청·학동·여맹·합동노조·철도노조 등 좌익청년단체들 6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여 무기를 들고 경찰과 우익진영 인사들의 체포와 재산몰수 활동을 벌였다.

여수에서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여수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좌익세력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군청과 각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행정경험자들 중에서 군수, 과장급, 계장급을 해임하고 우익단체에 가담하지 않았던 하위직 인사들을 출근케 하여 지속적인 행정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반란지구에서는 대부분 인민위원회와 보안서가 조직되었고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인민위원회는 친일파와 모리간상배들의 은행 예금고를 조사하고 적산가옥 불하대장을 조사했다. 또, 각 동별로 극빈자를 조사하여 인민증을 주고 그 소지자에 한해서 식량영단에서 1인당 3홉씩을 배급하기도 하였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 사건 전에 대출수속이 끝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였는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새로운 신청서가 쇄도하여 혼잡을 빚기도 하였다. 각 사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직장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인들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와 보안서는 반역자 처벌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숙청대상자를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처형하게 하였다. 이때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처형인사의 대상을 대폭으로 할 것인가, 소폭으로 할 것인가의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악질적이라고 판단된 우익인사 8명과 사찰계형사 2명이 처형되었다. 처형된 우익인사는 김영준(친일고무사장, 한민당 여수지부장, 일제 때 비행기 헌납), 차활언(독촉국민회 지부장, 5·10선거 출마자), 김창업(대한노총 부지부장), 이광선(미 C IC요원), 김수곤(미 C IC요원), 김본동(사업가), 서종형(사업가) 등이었으며, 경찰관은 박귀남(사찰계형사), 박창업(사찰계형사) 등이었다. 양심적이라고 판정되었던 20여 명의 경찰관들은 석방되었다. 반란군치하의 여수·순천지역 상황을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날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⁴⁾

10월 20일

폭동군과 좌익에게 여수시가 점령되자 제일 먼저 읍사무소 자리에 보안서를 설치하고 10시경부터 폭동군은 좌익청년 남녀학생, 그리고 라이터 돌이나 양담배 등을 파는 날뽕팔이 소녀 등의 안내로 이른바 반동경찰, 반동분자라고 그들이 부르는 경찰과 우익요인 등의 수색에 나섰으며 각 동에서는 적발·고발이 들어오기까지 했다. 체포된 경찰은 흥분한 군중에게 밟히거나 몰매를 맞고, 폭동군에게 잡힐 경우 그 자리에서 총살되기까지 했다. 경찰의 가산은 개방되어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다. 또한 인민위원회 간판도 나붙고 각 기관을 좌익이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거리에는 인민대회 포스터, 제주도출동거부 병사위원회의 성명서가 나붙었다. 오전에는 이따금씩 보이던 인공기가 오후에는 전 시가지에 휘날렸다.

병사위원회는 여수시를 반란군이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발간되었던 『허수인민보』에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병사위원회는 “외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정부를 팔아먹으려는 이법석, 이승만 등을 처단하기 위하여 봉기를 일으켰다.”고 성명서에 밝혔다. 이 성명서에는 제주도 출동 절대반대, 미군도 소련군을 본받아 즉시 철퇴하라, 인공수립 만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제주도 인민들은 제국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지난 4월에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조국을 수호하는 데 목숨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 병사위원회는, 여수에 있는 모든 장병들은 제주도 인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며, 앞으로 제주도 파병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반란이 진정한 조선인민의 군대로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국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⁵⁾

3) 김계유, 위의 글, 262쪽.

4)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462~465쪽 ; 김남식, 『탐로당 연구』, 돌베개, 1984, 383~385쪽에서 재인용.

오후 3시 반경 중앙동광장에서는 지하에서 비합법적으로 활동하던 민애청·학동·민주여성동맹·합동노조·교원노조·철도노조 등이 깃발을 들고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3만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인민대회는 추도가, 해방의 노래 등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노동자·학생·여성·남로당 대표 등이 번갈아 “이제 38선은 터졌습니다.”라는 선동연설을 할 때마다 박수가 있었고 청중 가운데 우는 사람도 허다하였다. 그들은 순진하게 남북이 정말 터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이용기·박채영·김귀영·문성희·유목운·송옥 등 인민위원회 의장단과 간부가 선출되고 인공에 대한 수호와 맹세 등 6개 항목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민청원, 남녀학생, 30세 내외의 장정들에게 경찰의 총 약 200정, 제14연대에서 트럭 3대로 날라온 총을 마구 분배하여 소위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전가로 대회를 끝마치고 군중시위로 들어갔다.

10월 21일

인민위원회가 기능을 시작, 친일파·모리배 등의 은행예금 동결령 및 재산몰수령이 내려지고 반역자 적발·색출이 계속되었다. 보안서에서는 한독당을 제외한 한민당·독촉·대청·족청·서청의 간부 혹은 단원의 문초가 시작되었다.⁵⁾ 인민위원회에서는 인구조사와 적산가옥조사를 실시했으며, 초저녁에는 경찰서 뒤뜰에서 고인수 서장 이하 사찰계 형사 등 약 10명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날 2시간의 여유를 준다는 국군의 귀순전단이 살포되었지만 38선이 터졌다는 허위선전에 워낙 흥분한 시민들은 동요가 없었다.

10월 22일

식량영단의 창고를 개방하여 1인당 쌀 3홉씩 배급을 시작하였다. 이날도 반역자의 체포와 문초가 계속되었다. 군청 이하 전 행정기관의 접수를 끝마쳤는데 과장급 이상의 관리는 파면되었다. 여수역 대합실에서 철도노조의 대회가 있었는데 회의 도중 신성한 대회를 약질 반동을 섞은 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들을 추려내어 보안서에 고발하였다. 이날 비로소 국군의 해군함선이 모습을 나타냈다.

10월 23일

오후 2시, 이른바 최고심사위원회에서 처단 반역자로 결정된 우익인사의 사형이 보안서 앞에서 거행되었다. 처형된 사람은 김영준(천일고무 사장), 박귀환(대한노총 여수지부위원장), 연창희(경찰서 후원회장), 차활인(한민당 간부), 이광선(미군방첩대 여수주재원), 최인태(CIC 요원), 김수곤(상동), 박창길(사찰계 형사), 박귀남(사찰계 형사) 등 9명이었다. 한편 체포된 경찰관과 민간인 200여 명이 일단 석방되었다.(후에 국군의 공격이 치열해지자 일부는 재구속되어 즉결처분됨) 그리고 쌀배급을 계속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는 용자까지 했으며 산업기관은 종업원에게 운영권을 위임하기도 했다. 폭동군에게 전매국에 있는 담배를 배급했으며 돌산도에서는 인민재판이 열렸다.

10월 24일

순천 방면에서 국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폭동군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국군은 꽤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몇 명은 포로가 되었다. 폭동군 측에서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 탄약을 운반하던 민주여성동맹원 정기덕이 사망하였다. 이날도 식량배급이 계속되었으며 각 기관의 사무인계가 완료되었다. 이날 여수인민위원회를 발행인으로, 박채영을 편집인으로 한 『여수인민보』라는 신문이 21일자로 발행되었다.

10월 25일

국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이날로 개시되었는데 맹렬한 교전 끝에 일단 후퇴하였다. 폭동군은 병력을 보강 전력을 재 정비했으며 오후 1시 보안서 앞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동원된 가운데 정기덕의 인민장이 진행되었다.

10월 26일

국군의 맹공격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다. 읍 주변의 미평, 오림리 부근의 주민들은 피신을 해야만 했다. 폭동군은 국군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구레 방면으로 퇴각했으며 여수 시내는 대부분 좌익청년, 학생들이 지키게 되

5) 존 메릴, 앞의 책, 189쪽.

6) 한독당을 제외한 것은 김구와 그 일부가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5·10단독선거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었다. 밤이 되자 여수 쪽 하늘이 붉었다. 이날 밤 시장동 일대가 잿더미로 변했다.

10월 27일

26일 저녁부터 불이 계속 타오르는 가운데 오전 10시에 국군의 장갑차가 시내로 돌입하였다. 총알과 박격포탄에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이 속출했으며 집이라는 집에는 모두 구멍이 뚫렸다. 반란병사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학생, 청년들 10~20명씩 한 조를 맡아 지휘하는 극소수가 남아 있을 뿐이다. 오후 2시경 시내를 완전 탈환하고 3시 반경 전 여수읍이 재탈환되었다.